‘WTO 10년’ 농가 인구 30% 줄었다

농업 소득 정체…부채 연평균 11.5% 증가

농협 보고서 “국내 농업 크게 위축”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낸 우루과이라운드(UR)의 발효로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이후 10년간 국내 농가인구는 30% 가량 줄고 농업소득은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농협중앙회 김영섭 조사역이 통계청의 농가경제통계 등을 기초로 분석한 ‘농가경제 구조변화(1995~2005)’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1995년 485만1천명에서 지난해 343만3천명으로 29.2% 줄었다.

연평균 3.4%씩 농가인구가 사라진 셈이다. 전체 인구에서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5년 10.8%에서 지난해 7.3%로 줄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빠른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은 1995년 42.3%에서 2004년 59.2%로 높아졌다.

아울러 농가소득은 1995년 2천180만원에서 지난해 3천50만원으로 연평균 3.4%씩 늘었지만 같은 기간 농업을 통한 소득은 연평균 1.2%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농외소득은 3.6%, 이전소득은 7.2%씩 늘었다.

김 조사역은 “이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였던 점을 고려하면 농업소득은 감소한 셈”이라며 “대농과 소농의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가부채는 1995년 농가당 평균 916만원에서 2005년 2천721만원으로 연평균 11.5%씩 늘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농가자산은 1억5천817만원에서 2억7천818만원으로 연평균 6.5% 증가에 그쳤다.

특히 지역별 땅값 격차가 커지면서 농가의 자산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산규모가 가장 큰 경기지역의 농가는 평균자산이 5억8천309만원으로 전남지역(1억9천325만원)의 3배에 달했다. 1995년에는 경기지역이 2억3천374만원으로 전남(1억1천218만원)의 2.1배 수준이었다.

한 농민단체 관계자는 “설상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경우 지난해 농업소득의 40%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농가소득은 줄어들고 빚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FTA 체결은 농촌을 붕괴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신규 분양 주택 거래세율 최우선 인하

정부는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거래세율 인하와 관련,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율을 우선적으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 신규주택 분양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은 부가세(농특세·교육세)를 포함하면 4.6%로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인 2.85%보다 훨씬 높다.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연간 지방세수 추계가 가능한 9~10월이 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원칙에 따라 거래세율 인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과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을 해결하는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거래세율의 불형평성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번 거래세 인하에서 개인-법인간 거래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법인 간 거래세율 인하를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2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우려되는데, 보유세 증가분으로 해결하고 여력이 있으면 개인-개인 간 거래세율도 낮출 생각”이라고 말했다.

거래세율 인하시기는 국회 파행이 없다면 9~10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야 모두 거래세 인하를 원하고 있는 데다 ▲국회에서 거래세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의결할 경우 시행을 내년 초로 미루면 거래동결의 문제가 발생하고 ▲정부도 5·31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론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가능한 한 빨리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국-EU, FTA 체결 땐 한-미 FTA 이상의 효과”

16國 바이어 223명 설문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세계 최대 수입시장인 EU 시장에서 한국 주력품목의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코트라(KOTRA)는 EU 역내 16개국의 바이어 150명, 현지 진출 한국기업 종사자 73명 등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낸 ‘한-EU FTA체결 영향 및 현지업계 반응’보고서에서 이렇게 내다봤다.

설문조사 결과 현지 바이어의 64%가 한-EU FTA체결시 한국산으로 수입선을 변경할 의사를 표명했고, EU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의 63%도 FTA가 EU지역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양자간 FTA체결은 자동차, TV부품, 타이어, 컴퓨터주변기기 등 한국 주력 수출품의 수출증대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여타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양국 통상장관이 FTA추진 논의에 합의한 이후, 코트라 구주지역본부가 대 EU 10대 수출품목의 현지 경쟁동향, 인지도, 교역장벽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어 및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됐다.

EU 25개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4조300억달러로 미국 수입시장의 2.4배에 달하며, 한국의 지난해 대EU 수출은 437억달러로, EU는 중국에 이은 한국의 두번째 수출시장이다.

EU는 한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12.8%에서 지난해 15.4%로 증가하고 있어 한-EU FTA체결은 한미 FTA에 버금가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력 수출품목 중 타이어(83%), 자동차(78%), 컴퓨터 주변기기(73%) 등 관세인하 효과가 높고 역외국 수입비중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수출증대 가능성이 높았다.

반도체(50%), 선박(11%) 등 이미 관세부담이 없고 타국과 경쟁이 치열한 제품들은 FTA 체결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70%), 반도체(50%) 등 수입관세가 0%인 제품에 대해서도 상당수 현지 바이어와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이 FTA체결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응원땐 녹차를”

녹차 브랜드 설록차가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뜻에서 11일부터 오설록 티하우스 종로점에서 월드컵 응원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찬물에 흔들어 마시는 설록차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KDI “경기 단기간 급락 가능성 작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경기상승 속도의 조정 조짐이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5월 경제동향’ 자료에서 통계청의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재고증가율은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경기상승 속도가 조정되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회복이 경기확장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어 경기의 급락 가능성은 작은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고유가 등의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150여건

산업자원부, 국제 표준화 추진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신성장동력산업 50개 기술분야에서 150여건의 우리 기술을 2010년까지 국제표준으로 제안키로 하는 내용의 ‘2006 신성장동력산업 국제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기술은 차세대반도체 분야의 나노공정 및 반도체센서, 지능형 로봇분야의 지능로봇플랫폼, 디지털콘텐츠분야의 동영상압축(MPEG), 소프트웨어솔루션 분야의 무선인식(RFID) 등이다. /연합뉴스

‘대우건설 인수’ 재계 판도 변화

자산 5조9천억원 넘는 거대 기업 금호 인수땐 11위→8위로 ‘껑충’

올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의 최대어인 대우건설 본입찰이 9일 마무리되면서 재계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자산이 5조9천억원이 넘는 거대 기업이어서 최후 인수자가 누구냐에 따라 재계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본입찰에 함께 참여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두산그룹은 대우건설 인수 여부에 따라 재계 순위가 뒤바뀌는 등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0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순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5조9천780억원로 재계 21위(공기업, 민영화된 공기업 제외)에 해당된다.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중 하나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자산 12조9천820억원으로 재계 11위다. 이 회사가 대우건설은 인수하면 자산이 18조9천600억원으로 증가해 함께 본입찰에 참여한 재계 10위의 두산그룹(13조6천590억원)을 추월함은 물론 한진그룹(20조7천20억원, 7위)에 이어 재계 8위로 뛰어오른다.

만약 예상을 깨고 두산그룹이 대우건설을 손에 넣으면 자산 19조6천370억원으로 역시 8위로 종전보다 2단계 상승한다.

대우건설을 인수해 장기적으로 자사의 건설 자회사와 합병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순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평가·고시하는 것으로 관공사 입찰자격과 점수를 매기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대우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5조4천600억원(이하 토목건축 기준)으로 삼성물산(5조9천360억원)에 이어 2위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현재 건설 계열사인 금호산업(1조6천370억원)이 시공능력평가액 9위에 랭크돼 있어 대우건설을 인수해 금호산업과 합병하면 단숨에 1위로 뛰어오를 공산이 크다.

두산그룹도 마찬가지다. 두산산업개발(1조5천910억원)이 10위, 두산중공업(1조1천750억원)이 14위를 각각 차지해 대우건설 인수후 어느 계열사와 합병을 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 1위 자리를 꿰찰 수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세계 35위

FT 선정 세계 500大 기업 미국 ‘엑손 모빌’ 1위 차지

미국의 엑손 모빌이 배럴당 70달러를 돌파한 유가 상승에 힘입어 파이낸셜타임스(FT) 신문이 선정한 시가총액 기준 세계 1위 기업의 자리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해 52위에서 올해 35위로 껑충 뛰어올랐고, 지난해보다 3개 더 많은 9개 국내 기업이 500대 명단에 포함됐다.

12일자 신문 지면을 통해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발표하는 FT는 올해 석유, 광산, 금속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석유를 사용해야 하는 제너럴 모터스, 포드, 푸조 등 자동차 회사들은 명단에서 탈락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해 2위를 차지했던 엑손모빌은 올해 3월말 기준 시가총액 3천716억3천13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해 1위에서 올해 2위,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해와 똑같은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티그룹(4위), 브리티시 페트롤리엄(5위), 뱅크 오브 아메리카(6위), 로열 더치 셀(7위), 월-마트(8위), 도요타 자동차(9위), 가즈프롬(10위) 등이 10위권내에 포진했다.

세계 제1 경제강국인 미국의 500대 기업은 지난해 220개에서 올해 197개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국은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천71억9천710만달러로 세계 35위 기업에 올랐고, 현대자동차(389위), 신한금융지주(488위), 우리금융지주(494위)가 새로 500대명단에 들었다. 이밖에 국민은행(236위), 한국전력(260위), 포스코(326위), SK텔레콤(476위), LG필립스LCD(483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500대 기업으로 선정됐다. /연합뉴스

금호생명 새 대표에 최병길씨 내정

금호생명은 11일 새 대표이사에 최병길(53) 부사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 내정자는 한빛은행 경영혁신단장, 우리은행 경영기획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8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편안한 잠자리 ‘수맥돌침대’ 인기

은을 깔아 항균효과와 은의 전기전도성을 이용해 수맥차단 효과를 높여 편안한 잠자리를 해결하는 ‘수맥돌침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수맥돌침대’는 미국 FDA는 물론 우리나라 식약청 인가와 함께 미국·독일 등 5개국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유명하다.

특히 친환경 무공해 소재인 천연라텍스 메트를 적용, 3천400개의 구멍을 뚫어 온열이 올라오게 해 신혼부부의 침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20여년의 연구끝에 이 침대를 발명한 수맥돌침대 이경복 사장은 “취향에 맞게 온도를 사계절로 조정해 사용할 수 있어 침대는 하나지만 각기 다른 온돌방을 즐길 수 있는 효과를 지닌다”면서 “또 온도조절기를 외부에 장착, 전자파 문제를 말끔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문의 (062)366-3833.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로또복권 (제18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01	02	06	16	20	33		41

등 위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747,753,050
2등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56,379,131
3등	5개 숫자 일치	1,313,113
4등	4개 숫자 일치	55,183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팝콘복권 (제7회)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1등	10억	6조	869993
2등	5억원	6조	869992
		6조	869994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등	1백만원	각조	81843
5등	1만원	각조	794
6등	2천원	각조	73
		각조	77
7등	1천원	각조	2
		각조	3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 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토탈웨딩그룹 웨디안웨딩	웨딩매니져/웨딩플래너 신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6/15	062-224-5655
제이앤비컨설팅	(해태음료)광주/전남/전북/사원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6/15	062-512-5864
에이엔오코리아	세무, 회계업무 경리직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6/15	062-521-4120
㈜엠엘아트	인테리어시공, 설계, 3D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11-645-1115
㈜하나엔터테인먼트	경호. 경비. 보안요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6	062-269-9991
광주인탑스㈜	전자부품 사출성형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고졸/경력3년	2,000~2,200	06/17	062-944-0111
포철기연㈜	신입 및 경력사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19	061-798-3220
㈜ 아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6/20	062-601-7203
㈜PNCS	마트내 인력관리 & 교육 매니저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6/20	011-416-1017
㈜엔지테크	프로그래머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0	062-675-8750
㈜밀리시스	연구원 (전기,전파,통신 전공자)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972-0224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공계 국비무료 취업연수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6/25	062-350-2436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